

# 김계관·힐 “회담 내용 좋았다”

## 싱가포르 북·미 회담... 핵 신고 이전 해소 진전 이룬 듯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일 핵신고 해빙 도출을 위한 북·미 수석대표 회동 후 “좋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숙소인 리젠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본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잘 이뤄지면 중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수석대표 회동 이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많이 좁혔다”면서 “회담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날 북한 대사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미 사이에 6자회담 현안을 풀기 위한 협의를 진지하게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또 “앞으로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 신고 방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 달라”고 답해 여론을 납득했다.

이번 북미회담은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최종 조율될 것이란 점에서 6자회담의 전도를 가를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된다.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에서 이날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에서 만나 핵 신고의 최대 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협력력 의혹 등에 대한 이견 조율 작업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50분(한국시간 11시50분)께부터 1시간 30분 가량 협의하고 점심을 따로 먹은 뒤 회담을 시작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숙소인 리젠트호텔을 나서면서 “오늘 회동은 어떤 합의(agreement)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6자회담의 문제를 가를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된다.”

“회담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좋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좋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좋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10.3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31일까지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했지만 UEP와 시리아와의 협력력 의혹 등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시한을 석달 이상 넘기도한 신고를 미루고 있다.

북·미는 이미 플루토늄 관련 사항은 북한이 정식 신고서에 담아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지만 UEP와 협력력 등 민감한 이슈는 ‘간접시인’ 방식으로 양측만 공유하는 비공개 양해각서를 통해 신고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뉴스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런던에서 봉송된 6일, 친(親) 티베트 시위자 한 명이 런던에서 시위중 경찰에 의해 땅바닥에 넘어지고 있다. 연립뉴스

성화 봉송 저지 시위

# “민생법안 5월 국회서 처리”

## 이 대통령 주문 “내수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들을 총선이 끝난 후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 이후 여야가 만나기 쉽지 않을텐데,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7대 국회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임기까지는 본연

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도 다음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얘기했지만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린이 납치사건과 부정식품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나는 먹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아동 유괴범과 식품사범의 엄단을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립뉴스

이 대통령은 ‘4.9 총선’과 관련, “부정선거가 있는 곳에는 엄격하고 신속한 제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음해한다거나 금권선거를 한다거나 하는 곳은 엄히 다스려 한국의 선거문화를 바꾸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에 대해 “한·미, 한·일 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뒤,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탄생에 대해 “이소연 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우주인이 되는 오늘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서 “성공적 발사를 기원하고 이 양의 성공적 우주 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 베이징 올림픽 성화 ‘고난의 길’

## 가는 곳마다 티베트 항의시위 부딪혀

“조화의 여정”이란 취지가 무색해졌다. 130일간 동안 5개 대륙 23개 도시에 걸쳐 총 13만7천km를 달릴 예정이던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가 가는 곳마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책 회의를 열어 성화봉송 일정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IOC 측은 외부적으로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행사 주최자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봉송 행사는 격렬한 시위대의 반발로 인해

세 차례나 성화를 끄고 재점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28km의 봉송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앞서 6일 성화가 런던을 통과하는 동안 빛어진 격렬한 시위로 인해 37명이 연행됐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7일, 반중국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티베트 사태가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바란다”고 말했다. IOC 관계자는 국제적 관심이 티베트 사태로 모아지면서 위원들 사이에서 올림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립뉴스

다이애나妃 사인은 부주의한 운전 때문  
검시 배심원단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는 자신의 운전기사 앙리 폴과 파파라치 사진기자들의 매우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숨졌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나왔다.

검시 배심원단은 세계 여러 나라 250명 이상의 목격자로부터 약 6개월간의 의견을 듣고 나흘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다수결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연립뉴스

# 힐러리 ‘3대 악재’에 운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막바지 접전을 계속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속출하는 악재들로 곤경에 처했다.

핵심 선거참모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명운이 걸린 슈퍼대원의 지지도 부진한 가운데 대역전의 실낱같은 희망을 되살릴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저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에게 지지율이 따라잡혔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지율 추락=아메리칸 리서치그룹 조사 결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힐러리와 오바마의 지지율은 각각 45%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7일 발표됐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원래 힐러리의

지지기반이 든든해 압승할 수 있는 우세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여론조사 지지율도 그동안 힐러리가 두 자리 수의 우위를 지켜왔다.

◇우위 잃어가는 슈퍼대원 지지=경선 투표에서 오바마에 뒤지는 힐러리의 거의 유일한 희망은 796명에 달하는 슈퍼대원들의 지지에서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2월5일 ‘슈퍼 화요일’ 이후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는 슈퍼대원들은 속속 늘어나는 반면, 힐러리 지지자는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까지 있다.

뉴욕타임스 집계 따르면 2월5일 ‘슈퍼화요

일’ 당시 슈퍼대원 지지는 힐러리 204명, 오바마 99명이었으나 두 달이 지난 6일 현재 지지 분포는 힐러리 221명, 오바마 209명이다.

◇핵심 선거참모의 낙마=막판 대역전을 노리는 힐러리 캠프는 수석선거 전략가인 마크 펜의 낙마로 곤경에 빠졌다.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펜실베이니아 경선의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버스-마스텔러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펜이 미-콜롬비아 FTA 의회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유엔 주재 콜롬비아 대사를 만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립뉴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뷔페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만족을 높였습니다.

- 다채로운 음식
- 특별한 서비스
- 친절한 직원
- 깨끗한 환경

“스카이뷔페” OPEN

예약상담 0621262-2278

전통 제례 음식

시례상 · 제사상을 완벽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든 전통 제례 음식을 직접 생산한 고품질 재료로 만든다. 신선하고 맛있게 준비된 제례 음식을 아래 표에 주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례상

- 스카우트상 180,000원(12명용)
- 가족시례상 220,000원(15명용)
- 특별상 320,000원(15명용)
- 대가족상 430,000원(18명용)

주소: 북산로 향토문화대 (대전광역시 서구 신서동 1100) 042-674-6211 FAX: 042-674-6200

www.gangwon.com